

한국문화교류 소식

20호 2016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한인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이형모
ICKC 운영위원, 재외동포신문 대표

후계세대 육성의 의미

해외에 살면서 땀 흘려 돈 버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자녀 교육'이다. 혼자서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들인다고 쉽게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니 한인사회가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주재 공관과 본국 정부가 도와야 한다.

자녀 교육은 '자녀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

부와 사회'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들은 열심히 일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물려받는 자식의 자질과 능력이다.

오랜 세월 '수많은 위협과 학살'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에게만 장학 지원을 하는 대신, 자식의 또래 친구들을 함께 명문대학에 장학 지원해서 교육시켰다. 훌륭한 또래집단을 '평생 동지로 자식에게 선물해 안전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이 관점은 정부와 '사회공동체'에 이르러서는 훨씬 중요하다. '훌륭한 차세대'를 육성하는 데 실패한 국가와 민족은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청년실업을 해결 못하면 우리 사회는 훌륭한 후계 세대를 얻을 수 없다. 나아가 재외동포들의 성공을 '민족공동체의 미래'로 이어가려면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부지게 투자해야 한다.

기본이념과 방향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청구학원 츠쿠비' 학교를 설립한 재일동포 2세 김정출 이사장은 지역사회

사람은 시장과 정치에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움직이고,
리더는 공동체의 이익과 대의명분으로 움직인다.
리더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움직이면, 공동체는 분열하고 쇠락한다.

가 존경하는 외과의사로서 병원장이다. 1만 7천 평 폐교를 인수해서 1학년에 100명씩, 600명 전원을 수용하는 스파르타식 전일제 기숙학교를 세웠다. 그에 계는 기본이념과 방향이 중요했다.

재일동포사회가 제공한 장학금으로 의대를 진학할 수 있었던 그는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민족학교를 세워 후배들에게 갚고 싶다고 했다. 일본 지역사회에서 노인요양, 아동복지, 교육 등의 사업으로 뿌리 내린 김정출 이사장은 아직도 일본식 이름이 없다.

그의 건학 이념은 첫째는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예의 바르고 극기심 있는 사람, 한국어·일본어·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국제적 시야를 가진 인재, 장차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재일동포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다. 요컨대 철저한 민족의식과 필요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 싶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강건한 리더들

세계 각국에 한인사회를 일군 우리들은 '성공한 1세대'로서 예선을 통과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썸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멀리 '결선 무대'에 진출하게 도와려면 애쓸 일이 많다.

한인사회와 정부가 힘 모아 한국어와 문화, 역사를 가르쳐 '올바른 정체성을 지닌 한국인'으로 육성하고, 복수의 언어와 정체성을 습득한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한다. 공부만 잘하기보다는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롭고 강건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책임질 후계세대는 '산업사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을 이끌어 가는 크고 작은 추장

이요 리더들이다. 그렇게 '창의적이고 강건한 리더'들을 육성하면, 믿음직한 인재들이 책임지고 경영을 맡게 될 것이므로 한인사회나 통일 한국의 미래는 밝아진다.

함께 가는 리더의 길

한인회장이나 단체장이 되면 시간과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자기 개인 사업에도 희생이 따른다. 그렇다고 주변의 칭찬과 협조를 기대하는 것도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회장 되었으니 고생 좀 해라. 나는 나중에 회장되어 애쓸게.' 이런 식으로 협조를 소홀히 하면 모두들 지치고 성과는 보잘 것 없게 된다.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상채도 크다.

'나의 삶과 인격은 다만 내 몸에만 담기는 것일까?'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함께 사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면 의기양양하고, 경멸당하면 풀이 죽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가족, 이웃, 한인사회 공동체 속에 담겨 있는 나 자신의 삶과 인격의 현주소를 보게 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모두 '리더'들이고 공동체의 주인이다. 우리들 중에 누가 '당번'이 되어 한인회장을 하건, 한글 학교 교장을 하건, 평통 지회장을 하건,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당번 맡은 사람의 돈, 시간, 노고를 털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담긴 공동체를 돌보는 방법이고, 우리들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사람은 시장과 정치에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움직이고, 리더는 공동체의 이익과 대의명분으로 움직인다. 리더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움직이면, 공동체는 분열하고 쇠락한다."



글로벌 시대! 한국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박춘태

북경 화자이대학교 한국기업관리대학 학장 · 국제교류처장

국가성장 동력으로 소프트웨어가 화두로 등장했다. 그 가운데 문화산업은 국가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류와 한국어의 위대함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 냈으므로 한국 드라마, 음식, 화장품의 가파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류와 한류 스타에 열광하는 중국 팬들을 상상해 보라. 매력적이고 우수한 우리 문화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간 경계는 없다시피 하다. 마치 대류의 순환처럼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무한경쟁의 시대! 성장과 발전의 핵심에 한국어가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요 언어이자, 세계를 연결하는 언어 도구로 진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1990년대 초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국어 강좌는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 왔다. 230여개에 이르는 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좌 개설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최근에는 유치원에서조차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생겼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유치원 어린이에게서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중국에서의 한국어 열기는 교육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양국 간의 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학습자가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수 학습에 매료되어야 하는데 만족조차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에는 아직도 한국 기업 맞춤형 대학이 거의 없다. 이런 연유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에서는 적절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교육과정 개편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북경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체는 2,0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체에서는 한국어 구사력은 물론, 통역, 번역도 가능한 인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요즘은 전문적인 통역, 번역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과과정 개편 외에 기업 적응력 교육도 관건이다. 1학년부터 방학 때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업무 수행력이 좋아질 뿐더러 한국어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북경 화자이대학교(Beijing Huajia University)에서는 한국기업관리대학을 설립하여 한국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맞춤형 대학을 지향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학습동기 유발은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를 위해 목표 설정과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있는 대학에서는 과목명을 대폭 수정했다.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사진 및 그림


으로 배우는 한국어, 노래 및 기타로 배우는 한국어 등 이론 중심이 아닌 그야말로 실재를 접목한 한국어 과목을 개설했다.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는 실제로 노래방을 만들어 배우게 하고 있으며, 기타로 배우는 한국어는 기타 강사가 기타를 가르쳐 주면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또 교실 외 수업으로서는 SNS를 통한 구어체, 문어체 문장의 연습 등 자연스럽게도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이 있어야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에 말하기 영역이 없다. 한국어 구사력을 측정할 수 없으니 학습자들도 답답하고 인재를 구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은 현실적으로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능력시험의 불합리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말하기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시험 성적이 좋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런 시험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제대로 된 한국어 구사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한국 기업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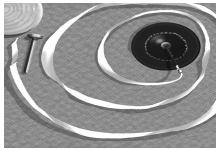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들을 교육시키는 몫은 일선 교사들, 전문가에 달려 있겠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적인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데 있다. 한류의 탄생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었다. 그것이 원천이 돼 오늘날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한류를 창출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높다. 이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상하지 않은 교육콘텐츠, 열정을 가진 교육자, 다양한 전문가가 두루 포진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융성이란 합리와 불합리, 모순과 비모순의 조화 속에서 탄생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56개 민족이 어우러진 중국의 찬란한 문화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데서 비롯됐다. 일방의 콘텐츠가 아닌 공통의 주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은 한국어의 자생력 확보는 물론, 한국어가 지구촌 방방곡곡으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지평을 열 것이다. ■■■■■■■■■■



한국어 기사

한국어능력시험에 45개국서 7만 2천명 지원 ... 역대 최다

지난 4월 16~17일 치러진 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내외 45개국 164개 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 총 7만 2천 29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이 처음 시행된 1997년 이래 1회당 지원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수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지원자 수는 급증세를 보여, 20년 동안 지원자 수는 약 70배 이상 증가했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은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서, 한국어 보급과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_ 연합뉴스 2016. 04. 18.



문화탐방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탐방기



강석재

ICKC 운영위원, 세계태권도연맹 국제부 사무차장

지난 4월 30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재정위원장인 박의근 회장님으로부터 홍천 ‘국제농업연구소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저녁 행사에 부부 함께 초대를 받아 나들이를 가는 날, 하늘은 미세 먼지로 흐렸지만 오랜만의 나들이로 들뜬 아내를 보는 내 마음은 쾌청했다.

영동고속도로를 지나 서석면에 접어들면서 서봉사 계곡을 끼고 도니 깊은 골짜기 연두빛 푸르름과 이름모를 꽃들의 향연에 절로 탄성이 나왔다.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 포장도 안 된 좁은 산길을 계속 올라가니 끝자락에 국제농업연구소 팻말이 보이고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린다. 박 회장이 반갑게 맞아 주시고 미리 온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니 “이거 좀 드셔 보세요. 취나물로 만든 떡인데 오늘 아침에 만들어 아주 좋아요.” 박 회장이 원하는 떡이 말랑말랑 쫄득쫄득하니 맛이 일품이었다.

한 눈에 봐도 명당에 위치한 자연 경관이 수려한 국

제농업연구소를 한 바퀴 돌아보고, 일행들과 함께 오던 길을 되돌아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으로 갔다. 악기박물관 입구에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CKC 마리소리골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우리 일행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악기박물관은 서원대 이병욱 교수가 터를 기증하고 홍천군이 건축하여 2007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악기박물관으로서, 종묘제례악에 연주되던 편종을 비롯하여 큰 북, 가야금, 칠현금 등 인간문화재 및 명인들이 사용하던 악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악기도 전시되어 있고, 또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박물관 관장인 이병욱 교수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을 둘러본 후, 2015년 ICKC가 건립 추진한 독일 디스라켄 파독 광부·간호사 기념관과 아리랑파크 건립을 축하하는 이 교수와 어울림 전통예술단의 공연 영상을 감상했다.

악기박물관 관람 후 이 교수의 부인인 전통 춤꾼 황경애 님이 정성껏 준비한 가마솥 감자밥과 삼겹살을 비롯하여 귀한 산나물 반찬으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다. 이윽고 박의근 회장이 참석자 개개인별로 소개하고 모두에게 건배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 갔다

이날 저녁 모임에는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 강성구 전 국회의원,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관, 김용구 전 의원을 포함한 ICKC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어울림 회원 10여 명과, 노승락 홍천군수, 이준희 서석면 농협조합장과 동네 주민 몇 분도 자리를 함께했다.

저녁 식사 후 언덕위 멋진 한옥, 이룸하여 ‘어울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입구 벽에는 박 회장의 회사로 건립되었음을 알리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다.

우리 일행은 거실에서 등글게 모여 앉아 이병욱 교수의 기타 연주와 어울림 회원들의 장구 장단에 맞추어 함께 노래를 부르니 '마리소리골' 이름에 걸맞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우리는 마음껏 풍류를 즐겼다.

밤이 이슬하여 우리 부부와 다른 한 부부는 박 회장이 손수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제농업연구소 숙소로 갔다. 연구소 입구 물이 흐르는 웅덩이를 지나며 "이곳은 洗心川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닦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면에서 다리를 놓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사양했습니다. 마음을 씻기 위해 허허허." 박 회장은 물이 있는 웅덩이에 30초 정도 차를 멈추었고 나도 마음을 닦았다.

그날 밤 연구소 2층 서재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신록의 대자연의 가슴에 품으며 침대에 누우니 내가 자연이 되고 자연이 내가 된 듯 물아일체를 느끼며 단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박 회장은 연구소 구석구석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다. 1층의 한 방에 들어서니 방 가운데 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진이 걸려 있고, 또 다른 벽에는 '추기경 김수환'이라는 친필 사인이 있는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의의 액자



가 걸려 있었다. 추진위원 몇 분 이름 가운데 박의근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 왔다. 방에 있는 작은 침대 또한 추기경께서 은퇴하신 후 3년간 사용하셨던 침대라고 한다. 그리고 박 회장에게 보내신 친필 엽서가 있는 액자도 걸려 있는데 평소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박 회장의 포용력과 긍정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깊은 신앙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洗心川을 건너며 다시 한 번 마음을 깨끗이 닦은 후, 상쾌하고 유쾌한 아침 식사와 간단한 '해단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하는 말 "이렇게 공기 맑고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을 깨끗이 닦았으니 당분간 바가지 굵을 일이 없겠네요. 호호호."

앞으로 ICKC 모임에는 가능한 한 아내와 함께 해야겠다. ☐☐☐☐☐☐☐☐



태권도 기사

태권도박애재단 공식 출범 ... 난민출신 홍보대사도 임명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난민촌 어린이들을 돕고자 설립된 태권도박애재단(THF)이 5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사무실에서 첫 이사회를 열어 공식 출범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조정원 총재는 지난해 9월 21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행사에서 THF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WTF는 전 세계 난민촌과 재난 지역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에 태권도 보급과 교육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월드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WTCP)'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요르단, 시리아 등의 난민캠프 및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등에 '태권도아카데미'를 개관하고 봉사 활동을 해왔다. 한편 난민 자격으로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딴 뒤 벨기에 국적을 취득한 라헬레 아세마니가 THF 선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라헬레 아세마니에게 THF 홍보대사 임명패를 수여하는 조정원 WTF 총재

출처_ 연합뉴스 2016. 05. 20.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총회 및 창립 5주년 기념 포럼 성황리에 마쳐

3월 30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회 및 창립 5주년 기념 포럼이 성황리에 치러졌다. 조정원 본회 및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비롯해 조남철 이사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5년 사업보고 및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이어, 포럼에서는 “한국전통문화와 배려의 윤리”라는 주제하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가 “유교, 잊혀진 삶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탐방

4월 19일(화), 2016년 첫 문화탐방지로 광화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한국전쟁의 참상, 1960~70년대의 경제발전을 거쳐, 세계 일류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현재에 이르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잘 전시되어 있었다.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날이라 더욱 뜻 깊게 다가왔다.



■ 옥란재(옥란문화재단) 탐방

5월 24일(화), 경기도 화성의 옥란재(옥란문화재단)을 방문하였다. 전통한옥의 멋을 보여주는 옥란재는 인위적인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살아 숨쉬는 자연을 또한 품고 있었다. 숲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며 잘 몰랐던 나무들의 세계와 그 속에 담긴 인생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숲 인문학’ 강의는 특히 인상 깊었다. 옥란문화재단은 본회 위원이기도 한 홍사중 미래상상연구소 대표가 가대(家塾)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다문화가정지원과 농촌 사회경제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